

영건의례 및 산릉의례에 기록된 건축부재 구로대에 관한 연구

이 연 노
(공학박사)

주제어 : 영건의례, 산릉의례, 겹처마, 평고대, 착고

1. 서론

언어에는 역사성이 있다고 한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언어 역시 새롭게 만들어지고, 시대에 따라 변해가며, 결국에는 소멸하는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때에 따라 어의가 변하기도 하며, 필요의 소멸과 더불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건축관련 용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영건의례 및 산릉의례에는 건축과 관련된 많은 용어가 수록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어떤 용어는 현재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경우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건축용어는 현재와 다른 한자를 사용한다거나, 지칭하는 부재가 변경된 경우도 발견된다. 이들 용어는 현재 사용하는 건축용어와 발음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부재를 지칭하는지 짐작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근래 영건의례에 기록된 용어의 고찰을 통해 상당히 많은 건축용어가 정리되었

다. 경기문화재단에서 발간한 『화성성역의례 건축용어집』¹⁾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는 건축용어로서 전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된다. 이들 부재의 경우 어느 부위에 사용되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언제 사라지게 되었는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에는 구로대(또는 구루대)²⁾라고 기록된 건축부재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구로대가 어떤 위치에 사용된 부재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영건의례 및 산릉의례에 기록되어 있는 건축부재 '구로대(또는 구루대)'를 중심으로 이 부재가 어느 부위에 사용하는 부재인지, 어떤 용도를 갖고 있는지, 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례 건축용어집』, 2007

2) 구로대는 의례에 따라 '구로대'로 읽히는 경우와 '구루대'로 읽히는 경우의 2가지 표기가 나타난다. 본 글에서는 시대적으로 앞서는 시기의 의례에서 표기한 '구로대'로 통일해 기술하고자 한다. 다만 특정 의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할 때는 의례 내용에 따라 기술한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R01-2007-000-20464-0).

2. 의궤에 나타나는 구로대의 양상

의궤에 기록된 구로대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 있다. 표기된 한자의 발음에 따라 '구로대'로 읽히는 경우와 '구루대'로 읽히는 경우이다. 구로대로 읽히는 표기방법으로는 의궤에 따라 '久老代', '仇老代', '求路代', '仇老臺', '仇露臺', '求露臺'와 같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기방법은 '求露臺'로 기록한 것이다. 한편 구루대로 읽히도록 표기한 경우는 '仇累臺', '九累臺'의 두 가지 표기방법이 등장한다.

1647년 기록된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서 가장 먼저 구로대가 등장한다. 구로대를 표기한 한자는 3가지 형태가 등장하는데 '久老代', '仇老代', '求路代'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모습이다. 또 이후 발간된 의궤에서 이상과 같은 표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 기록된 다른 건축용어 역시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로의 경우 '小老', '小櫓', '小路'의 3가지 표현이 발견되며 이 역시 다른 의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기법이다. 따라서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 기록된 구로대는 과거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표기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단지 구로대라는 부재가 사용된 것만을 확인할 수 있다.

1659년에 기록된 『(효종)산릉도감의궤』에는 '仇老臺'라고 기록한 부재가 등장하는데 '仇老臺'라고 표기한 유일한 예이다. 조성소 중정자각에 들어간 목물을 기록하면서 구로대가 나타나는데 구로대가 등장하는 부분의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朴工板六立小不等一條長十四尺圓徑一尺四寸
散子板六立樓柱一條
隅只三十介材木三條各長十尺圓徑一尺

仇老臺十七介中不等三條各長十八尺圓徑一尺二寸
平古代十七介中不等一條長十四尺圓徑一尺二寸
扇椽盖板一百二十三立材木二條
中道里毛里工四樓柱半條
付椽一百九十二介材木二十條
付椽盖板一百九十一立材木十二條”

각 부재 기술 순서는 박공판, 산자판, 우지, 구로대, 평고대, 선연개관, 중도리모리공, 부연, 부연개관의 순서로 기술되었다. 중도리모리공과 같이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는 부재도 있으나 모두 지붕과 관련된 부재임을 알 수 있다.

1674년에 기록된 『(인선왕후)산릉도감의궤』에는 '仇露臺'가 등장한다. 이 역시 유일한 사례에 해당하며 조성소 내용중 정자각 부분에 등장한다.

“朴工板六立小不等一條長十四尺圓徑一尺四寸
散子板六立次樓柱一條
隅只三十箇材木三條各長十尺圓徑一尺
仇露臺十七箇次中不等三條各長十八尺圓徑一尺二寸
平古代十七箇中不等一條長十四尺圓徑一尺二寸
扇椽盖板一百二十三立材木二條
中道里毛里工四次樓柱半條
付椽一百九十二箇次材木二十條
付椽盖板一百九十一立材木十二條”

앞서 『(효종)산릉도감의궤』와 비교해보면 각 부재의 기술순서가 동일하고 부재크기가 같음을 알 수 있으며 단지 '仇老臺'가 '仇露臺'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부재는 같은 부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구로대가 기록되어 있는 의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求露臺'이다. 1673년에 기록된 『(효종)충천봉)산릉도감의궤』와 1725년에 기록된 『(경종)의릉산릉도감의궤』 중에서

[표 1] 영건의례 및 산릉의례에 기록된 부연, 구로대, 평고대, 착고

의례명	시기	부연	구로대	평고대			착고
				평고대	초평고대	재평고대	
창덕궁수리도감의례	1647	付椽 扶椽	久老代 仇老代 求路代	平古代 平交代			
효종산릉도감의례	1659	付椽	仇老臺	平古代			
효종릉천봉산릉도감의례	1673	付椽	求露臺	平古代			
인선왕후산릉도감의례	1674	付椽	仇露臺	平古代			
현종승릉산릉도감의례	1675	付椽	求露臺	平高臺			
장렬왕후휘릉산릉도감의례	1688	付椽	求露臺	平高臺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례	1701	付椽	求露臺	平高臺			
경종의릉산릉도감의례	1725	付椽	求露臺	平高臺			
진전중수도감의례	1748	付椽	仇累臺	平交臺			
의소묘영건청의례	1752	付椽	仇累臺	平交臺			
순희세자상시봉원도감의례	1755	付椽	求露臺	平交臺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례	1757	付椽	求露臺	平交臺			
장조영우원묘소도감의례	1762	付椽	求露臺	平交臺			
수은묘영건청의례	1764	付椽	九累臺	平交臺			
건원릉정자각중수도감의례	1764	浮椽	仇累臺	平交臺			
경모궁개건도감의례	1776	付椽	仇累臺	平交臺			
영조원릉산릉도감의례	1776	付椽	求露臺	平交臺			
문효세자묘소도감의례	1786	付椽	求露臺	平交臺			
문희묘영건청등록	1789	付椽	仇累臺	平交臺			
장조현릉원원소도감의례	1789	付椽	求露臺	平交臺			
정조건릉산릉도감의례	1800	浮椽		平交臺			浮椽間板
화성성역의례	1801	浮椽		平交臺			浮椽間板
인정전영건도감의례	1805	婦椽	九累臺	平交臺			
건릉산릉도감의례(천봉)	1821	浮椽		平交臺			浮椽間板
현목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례	1822	婦椽		平交臺			婦椽間板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례	1824	婦椽		平交臺			着罍
효명세자연경묘소도감의례	1830	婦椽		平交臺			婦椽間板
서궐영건도감의례	1832	婦椽		平交臺	初再平交臺		
순조인릉산릉도감의례	1834	婦椽		平交臺			婦椽着古
창경궁영건도감의례	1834	婦椽		平交臺	婦椽平交臺		着罍
창덕궁영건도감의례	1834	婦椽		平交臺			着罍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례	1843	婦椽			初平交臺	再平交臺	着古
문조수릉산릉도감의례	1846	婦椽			初平交臺	再平交臺	着戶
문조수릉천봉산릉도감의례	1855	婦椽			初平交臺	再平交臺	着戶
순조인릉천봉산릉도감의례	1856	婦椽			初平交臺	再平交臺	着戶
인정전중수의례	1857	婦椽		平交臺			着罍坂
남전중건도감의례	1858	婦椽		平交臺			着罍坂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례	1895	婦椽			初平臺	再平交臺	着古
진전중건도감의례	1900	婦椽			初再平交臺		着罍坂
영희전영건도감의례	1901	伐婦椽		平交臺			着罍坂
중화전영건도감의례	1904	婦椽			初平交臺	再平交臺	着罍板
경운궁중건도감의례	1906	婦椽			初平交台	再平交台	着罍板

구로대가 나타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경우 모두 조성소의 정자각 부분에 등장한다.

“衝椽六次大不等六條正入長二十尺末圓徑一尺八寸
 舍羅六次材木三條
 長椽一百五十六介正入長十二尺末圓徑六寸
 扇椽一百五十六介正入長十七尺末圓徑六寸
 臺椽一百二十介正入長七尺末圓徑六寸
 求露臺二十次材木二條
 平古代二十三次材木二條
 左右合閣次材木四條
 散防二十次材木四條
 付椽二百八十次材木二十條
 付椽盖板次材木二十條
 扇椽盖板次材木四條
 椽盖板加叱防材木八條”

『(효종릉천봉)산릉도감의궤』

“長椽一百四十五箇
 中臺椽二十三箇
 樑心大椽八箇
 臺椽一百二十箇
 虛間臺椽十箇
 求露臺次樓柱三條
 平高臺次樓柱二條
 付椽盖板次材木二十條及裁折木推移用之
 付椽次材木二十條及裁折木推移用之”

『(경종)의릉산릉도감의궤』

『(효종릉천봉)산릉도감의궤』에서는 층연, 사라, 장연, 선연, 대연, 구로대, 평고대, 좌우합각, 산방, 부연, 부연개판, 선연개판, 연개판의 순서로 기술되었고, 『(경종)의릉산릉도감의궤』에서는 장연, 중대연, 양심대연, 대연, 허간대연, 구로대, 평고대, 부연개판, 부연의 순서로 기술되었다. 앞서 살펴본 의궤와 마찬가지로 구로대는 지붕부재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8세기 중반부터는 구로대라는 용어보다 구루대가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구루대는

‘仇累臺’로 표기한 경우와 ‘九累臺’로 표기한 경우가 있는데 ‘仇累臺’로 표기한 경우가 훨씬 많다. 『경모궁개건도감의궤』에는 ‘仇累臺’와 ‘九累臺’가 동시에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두 부재가 같은 부재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의소묘영건청의궤』의 정우(正宇) 9간에 사용한 부재의 일부이다.

“長椽六十二次大椽木六十二箇
 短椽六十二次大椽木三十一箇
 仇累臺次不等一條
 付椽六十二次材木八條
 木只四十二次材木六條
 散子板八次樓柱一條
 付椽盖板六十次修粧板十立
 平交臺四次不等半條
 連合次樓柱一條”

각 부재 기술 순서는 장연, 단연, 구루대, 부연, 목지, 산자판, 부연개판, 평고대, 연합의 순서로 기술했다. 『의소묘영건청의궤』에서도 지붕부의 부재를 나열하면서 구루대를 포함시켰다.

의궤에서 각 건물에 사용한 부재를 기술할 경우 대부분 석재, 목재, 칠물, 단청 등 재료에 따라 따로 기술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³⁾ 또 목부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도 기둥, 가구부재, 공포부재, 지붕부재, 수장부재를 각각 순서대로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살펴본 의궤에서 구로대가 어느 위치에 기술되었는지 다시 기술하면 『(효종)산릉도감의궤』와 『(인선왕후)산릉도감의궤』에서는 우지⁴⁾와 평고대 사이에 기술되었고, 『(효종릉천봉)산릉도감의궤』에서는 대연⁵⁾과 평고대 사이, 『(경종)의릉산릉도감의궤』에서는 허간대연⁶⁾과 평고대 사이,

3) 『경모궁개건도감의궤』,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 등에서는 목재와 칠재가 동시에 기술되었다. 목부재가 못으로 고정되는 경우 목부재를 기술하고 바로 다음에 ‘朴只’를 기술하여 못의 길이를 기록하였다.

4) 목기연으로 추정된다.

『의소묘영건청의례』에서는 단연과 부연 사이에 기술되었다. 모두 지붕부재를 기술하는 중에 나타나며, 상당히 많은 의례에서 평고대와 같이 기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효종)산릉도감의례』와 『(인선왕후)산릉도감의례』의 내용을 다시 참조하면 “구로대는 17개가 사용되는데 중부등 3조로 만들며 각 길이가 18자, 지름이 1자 2치이다. 평고대는 17개가 사용되는데 중부등 1조로 만들며 각 길이가 14자, 지름이 1자 2치이다.”고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구로대라는 부재는 평고대와 같이 매우 긴 길이를 갖는 부재임을 알 수 있고, 평고대가 중부등 1조로 가공되는 반면 3조로 가공되어 훨씬 많은 목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3. 구로대의 용도 추정

3-1. 『경모궁개건도감의례』 기록을 통한 구로대의 용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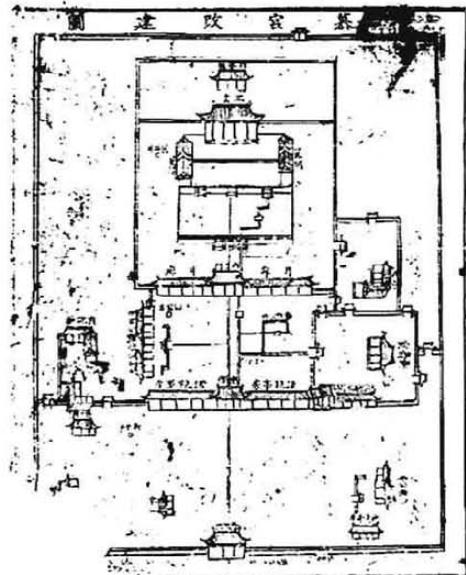
하나의 의례에서 구로대가 등장하는 빈도는 그리 높지 않다. 대부분 의례에서 구로대는 1번 정도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동시에 건립되는 건축물의 수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모궁개건도감의례』이 구로대의 용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모궁개건도감의례』는 1776년에 있었던 경모궁 수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른 의례와 비교해서 가장 많은 건물이 동시에 수리된 기록이다. 정당(正堂) 20간을 비롯해 제기고(祭器庫) 3간, 중배설청(中排設廳) 3간, 좌우월랑(左右月廊) 4간, 신삼문(神三門) 3간, 신삼문

행각(神三門行閣) 10간, 어재실(御齋室) 15간, 소차(小次) 10간, 향대청(香大廳) 8간, 제집사방(諸執事房) 3간, 수복방 및 부속건물 4간반, 전사청 및 부속건물 6간, 재살청(宰殺廳) 등 6간, 악기고(樂器庫) 등 6간, 악공청(樂工廳) 10간, 수문장청 등 3간, 중삼문 3간, 제관방(祭官房) 등 12간, 목욕청(沐浴廳) 등 3간, 수라간(水刺門) 등 5간, 어재실 대문 등 2간, 외삼문 3간, 전설사고(典設司庫) 등 3간 외에도 매우 많은 건물이 동시에 수리된 사례이다.

이 많은 건물들 중에서 구로대가 사용된 건물은 3체에 해당한다. 정당에 ‘九累臺’가 나타나며, 어재실에 ‘九累臺’, 소차에 ‘九累臺’가 사용되었다고 기록했다.

앞서 구로대가 지붕과 관련된 부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지붕형태를 추정해보자. 지붕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부재로 추려가 있다. 『경모궁개건도감의례』의 기록에 따르면 정당에는 추녀(春舌)가 사용되지 않았고, 어재실에는 4개의 추녀, 소차에는 5개의 추녀가 사용되었다. 소차에 5개의 추녀가 사용된



<그림 1> 『경모궁개건도감의례』 경모궁개건도

5) 단연으로 추정된다.

6) 허간은 헛집, 즉 팔각지붕의 합각 내부 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릉의 정자각은 일반적인 정자각과 다르게 팔각지붕으로 만들어졌다.

것은 평면형태가 ‘ㄱ’자형을 이루고 있고 끝추너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당은 맞배지붕을 하고 있고, 어재실, 소차는 팔작지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에서 동시에 구로대가 등장하기 때문에 구로대는 지붕의 형식과 무관한 부재임을 알 수 있다.

지붕에 사용하는 부재중에 박공이라는 부재가 있다. 박공이라는 부재는 모임지붕이나 우진각지붕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팔작지붕이나 맞배지붕에서는 측면에 항상 사용하는 부재이다. 『경모궁개건도감의궤』에 의하면 모든 건물에 박공이 사용되었다고 기술했다. 모든 건물이 팔작지붕과 맞배지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로대는 정당, 어재실, 소차에만 사용되었다고 기술했기 때문에 구로대는 박공과 연관이 없는 부재임을 알 수 있다.

『경모궁개건도감의궤』에서 정당, 어재실, 소차가 다른 건물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처마의 형태에 있다. 처마는 겹처마와 홑처마로 나뉘어지는데 이는 부연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경모궁개건도감의궤』의 기록에 따르면 정당, 어재실, 소차에서만 ‘부연(付椽)’, ‘부연개판(付椽盖板)’이 나타난다. 정당, 어재실, 소차가 겹처마로 구성된 반면 다른 건물들은 홑처마로 구성된 것이다. 이는 구로대가 등장하는 건물과 일치한다. 따라서 구로대는 처마와 관련된 부재임을 알 수 있다. 산릉의궤에 기록된 구로대의 경우 모두 정자각에서만 나타난다. 그 외 재실이나 다른 부속건축물에서는 구로대가 나타나지 않는다. 산릉에서 정자각만이 겹처마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처마와 관련된 부재로 부연, 부연개판, 평고대(초평고대, 재평고대), 착고를 들 수 있다. 『경모궁개건도감의궤』의 기록에 따르면 모든 건물에 평고대가 사용되었다고 기록했다.

즉 평고대가 홑처마에 사용된 경우 평고대로 기록하였고, 겹처마인 경우에는 재평고대를 평고대로 기록한 것이다. 앞서 구로대가 평고대와 유사하게 매우 긴 부재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구로대는 겹처마의 초평고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2. 단청장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통한 구로대의 용도 추정

현재 단청장인들은 ‘구리대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대상인 구로대와 매우 유사하게 발음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단청의 용어 및 기법을 설명한 『한국건축대계 III : 단청』에서는 처마단청을 설명하는 개요 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처마는 처마도리 또는 출목도리 바깥쪽으로 내민 서까래와 그 끝에 덧걸은 부연이 이루는 지붕 일부분 전체를 말한다. 부연 끝에 가로댄 평고대 또는 조로를 단청에서는 초매기(初莫耳), 서까래 끝에 댄 것을 이매기(二莫耳)라 한다. 목수직은 단청과 반대로 부르고 있다. 서까래는 단청문양을 연목초(椽木草) 또는 연등초(椽背草)라 하고 부연과 부연 사이를 막아댄 부분의 착고문양을 구리대초라 한다. 목수직은 구리대를 부연착고라 한다. 또 서까래나 부연의 끝마구리초를 연목부리초·부연부리초라하며 부연의 밑면을 부연뱃바닥이라 한다.”⁷⁾

목수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착고를 ‘구리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모궁개건도감의궤』를 통한 고찰 결과, 구로대는 착고가 아니라 겹처마의 초평고대를 가리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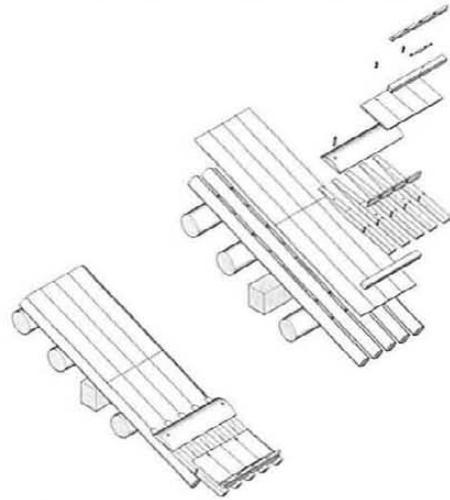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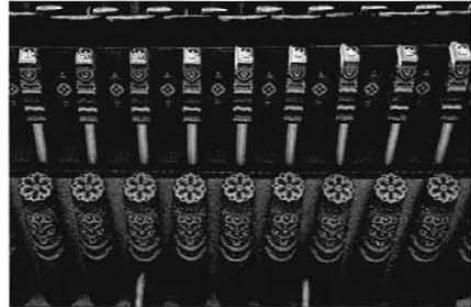
현재 겹처마는 장연, 부연, 부연개판, 초평고대⁸⁾, 재평고대⁹⁾, 착고, 부연누리개, 연합 등으

7) 상기인, 『한국건축대계 III :丹青』, 재판, 普成閣, pp.188~189, 1998

로 만들어진다. 건축물의 구조체를 결구한 다음 지붕에 시까래를 얹을 때 가장 먼저 초평고대를 걸어 지붕의 곡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초평고대의 곡선에 맞춰 장연을 시공하게 된다. 장연 상부에는 서까래와 서까래 사이를 막아대는데 건물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궁궐과 같이 고급건축의 경우 개판(盖板)이라는 나무판재를 이용해 막아대며, 일반적인 경우 산자라는 가는 나무를 깔고 여기에 새끼를 엮어 산자엮기로 마무리한다. 이후 부연을 시공하는데 부연을 시공하기 이전에 재평고대를 걸어 부연이 형성할 곡을 미리 정해놓는다. 부연은 뒷뿌리를 서까래에 못을 박아대는 동시에 초평고대와 만나는 자리에 못을 박아 고정한다. 부연의 측면에는 얇은 나무판을 꽃을 수 있도록 미리 가공해둔다. 부연이 시공된 다음 부연과 부연 사이를 얇은 나무판으로 막는데 이를 착고라 한다. 착고는 부연 측면에 미리 깎아둔 홈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고정한다. 다음으로 부연개판과 부연누리개를 얹는데 외부에 노출된 부연과 부연사이의 틈을 판재로 막는 것이 부연개판이며, 부연의 뒷뿌리가 들리지 못하도록 뒷뿌리에 얹는 굵은 목재를 부연누리개라고 한다. 이후 재평고대 상부에는 연함을 얹어 기와를 얹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단청장인들이 착고를 '구리대'라고 부른다고 하며, 『경모궁개건도감의례』의 고찰 결과 구로대는 초평고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단청장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오류가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 앞서 착고와 초평고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착고는 의례에서 '浮椽間板', '着罟', '着戶', '着古', '婦椽着古', '着罟板' 등으로 기록되었



<그림 2> 겹처마의 구성

(상:경복궁 근정전, 하:경복궁 근정문 처마 조립도 문화재청, 『영조규범조사보고서』, 2006, p.553)

다. 1800년에 기록된 『(정조)건릉산릉도감의례』에는 '浮椽間板'이 기록되어 있다. 부연간판은 조성소 정자각에 들어간 목물을 기술하면서 등장한다.

“長椽一百四十箇大椽木一百四十箇
 短椽九十二箇大椽木六十箇
 浮椽一百四十箇宮材十四株
 浮椽盖板一百三十四立樓柱四株
 浮椽間板一百三十四立邊板六立
 長椽累里介九箇邊板九立
 浮椽累里介九箇邊板九立
 平交臺十八箇樓柱四株
 朴工板六立大不等一株中不等一株
 椽含二十三箇材木二株”

8) 이를 초매기라고도 한다.

9) 이를 이매기라고도 한다.

기록에는 장연, 단연, 부연, 부연개판, 부연간판, 장연누리개, 부연누리개, 평교대, 박공, 연합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는데 평교대는 초평교대, 재평교대의 구분없이 기술되었으며, 구로대는 보이지 않는다.

‘着罽’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으로 1824년에 기록된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를 들 수 있다. 정당(正堂) 6간을 짓는데 사용한 건축부재 중에서 착고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椽次卜定大椽七十二箇
短椽次卜定大椽七十二箇
婦椽七十二次體木七箇
着罽七十次體木一箇半
累里介六次邊板六立
平交臺八次體木二箇
蓋板六十八次體木五箇
連舍六次邊板三立”

서까래, 부연, 착고, 누리개, 평교대, 개판, 연합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는데 초평교대나 재평교대에 대한 언급이 없이 평교대로 기록되었다. 역시 구로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1843년 기록된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에는 ‘着古’라는 표기가 나타나는데 착고는 조성소 정자각을 기록한 부분에서 보인다. 기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長椽一百三十箇次扇子大椽六十三箇伐去木六十七箇
短椽一百八箇次大椽九十八箇伐去木十箇
初平交臺十二箇次樓柱二箇
長椽蓋板一百二十四立次樓柱二十四箇
短椽蓋板一百八立次長松板一百立治鍊邊板八立
韶平七箇次邊條里三箇
椽累里介八立次邊板八立
婦椽一百二十八箇次樓柱八箇
着古一百二十八箇次邊板七立
再平交臺十二箇次樓柱一箇半

婦椽蓋板一百二十八立次樓柱五箇
婦椽累里介十箇次邊板十立
韶平七箇次邊條里三箇”

장연, 단연, 초평교대, 장연개판, 단연개판, 갓평, 연누리개, 부연, 착고, 재평교대, 부연개판, 부연누리개, 갓평의 순서로 기술했다. 이 의궤에서 평교대는 초평교대와 재평교대를 구분해서 기술하였다. 착고를 사용하면서 현재와 같은 용어개념인 초평교대, 재평교대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이다. 초평교대의 명칭이 기록된 반면 구로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着戶’가 기록된 『(순조)인릉전봉산릉도감의궤』, ‘着罽板’이 기록된 『인정전중수의궤』에서도 구로대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 반면 초평교대가 기록된 경우가 많다.

다음은 착고가 사용되었다고 기록된 의궤에서 평교대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연간판을 포함한 착고가 기록된 의궤에서 평교대가 표기되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앞서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와 같이 초평교대와 재평교대 구분없이 평교대라는 용어 하나에 모두 포함되게 기술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서궤영건도감의궤』에서 보이는데 ‘初再平交臺’라는 용어에 초평교대와 재평교대를 모두 합해 표기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平交臺’라는 용어 안에 길이가 다른 두 가지 평교대를 모두 기술하는 방식이다. 『인정전중수의궤』 등에서 보이는 방법으로 다음은 인정전 상층에 사용된 실례이다.

“平交臺十八箇內
九箇各長四十尺高五寸
九箇各長三十六尺五寸高五寸(以上新備)”

길이가 서로 다른 평교대가 사용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길이가 짧은 것이 초평교대이

며 길이가 긴 것이 재평고대인 것이다.

네 번째는 ‘初平交臺’와 ‘再平交臺’를 각각 기입한 경우다. 초평고대와 재평고대의 길이까지 상세하게 기입한 『중화전영건도감의례』의 중화전 하층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着罟板三百二十四立各長七寸廣六寸
初平交臺十四丈各長二十五尺
再平交臺十四丈各長二十七尺”

이 의례에 따르면 초평고대에 비해 재평고대가 훨씬 긴 부재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평고대가 등장하는 의례에서는 구로대가 등장하지 않는다.

앞서 2장에서는 의례에 기록된 구로대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구로대가 사용되었다고 기록된 의례에서 착고와 유사한 부재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겹처마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재가 열거되었으나 유독 착고만은 기술되지 않았었다. 반면에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착고와 유사한 부재가 기록된 의례에서는 구로대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평고대, 초평고대, 초재평고대라는 부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로대라는 부재가 초평고대와 더불어 착고의 기능을 겸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두된다. 오래된 고식의 기법으로 알려져 있는 소위 ‘통평고대’가 구로대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단청장인들의 입장에서는 착고를 사용하든지, 통평고대를 사용하든지 단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목수들의 건축기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용어가 바뀌지 않고 전해진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또 초평고대와 재평고대에 사용하는 단청 무늬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초평고대와 재평고대를 목수와 같이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없어서 초매기와 이매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

또 2장에서 『(효종)산릉도감의례』와 『(인선왕후)산릉도감의례』의 내용을 비교할 때 구로대가 중부등 3조로 만들어지는 반면, 평고대는 중부등 1조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구로대는 평고대에 비해 훨씬 많은 목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구로대가 평고대와 모양이 같은 초평고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재라면 결코 목재의 양이 많이 소용될 이유가 없다. 초평고대에 비해서 재평고대가 훨씬 길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장연이 형성하는 지붕곡에 비해 부연이 형성하는 지붕곡의 길이가 훨씬 길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도 구로대가 소위 ‘통평고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3. 통평고대

통평고대는 초평고대와 착고가 하나의 목재로 만들어진 평고대를 말한다. 일반적인 초평고대의 경우 재평고대와 마찬가지로 단면에 너비에 비해 높이가 높지 않은 부재를 사용하지만, 통평고대는 너비에 비해 높이가 높게 만들어졌고 부연이 놓일 자리를 사각형으로 파낸 모양이다. 평고대가 착고의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부연의 옆면을 따낼 필요가 없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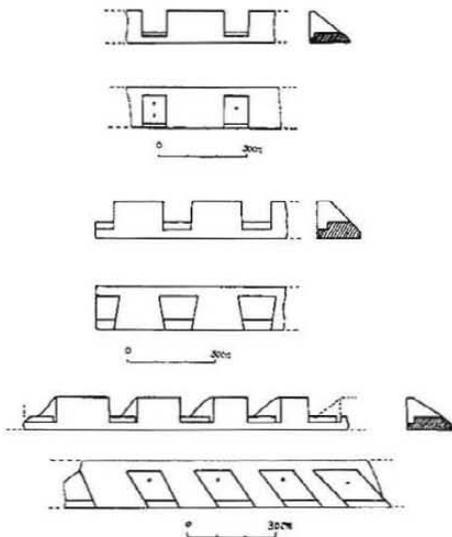
통평고대라는 명칭은 현재의 시공방법과 다르게 초평고대와 착고가 하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은 통평고대가 사용된 건물로 봉정사 극락전, 봉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 조사당, 수덕사 대웅전 등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해 통평고대는 매우 오래된 고식의 기법으로 인식되어 있다. 고려시대 건축물 이외에 17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정읍 피향정, 산청 울곡사 대웅전, 통영 세병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재이다. 그러나 17세기라 하더라도 통평고대



<그림 3> 통평고대 (부석사 조사당)

가 사용된 건축물은 극히 소수에 해당한다. 이런 까닭에 현재 전하는 건축물들 가운데 통평고대가 사용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년대가 상당히 오래된 고식의 건축물로 추정가능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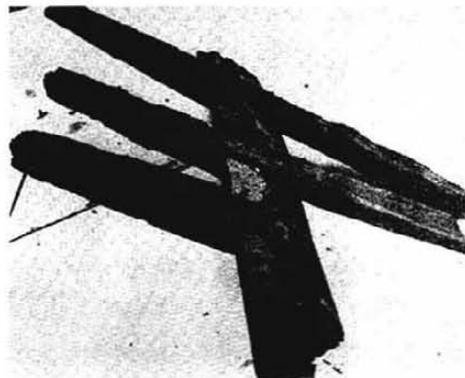
통평고대가 확인된 것으로 가장 오래된 실례는 신라의 안압지 발굴과정에 발견된 3점의 평고대이다. 2점의 평고대는 부연이 꽂히는 자리가 직각으로 만들어져 있어 일반적인 서까래 상부에 사용하는 부재인 반면, 하나의 평고대는 부연자리가 경사지게 만들어져있어서 선자서까래 상부에 위치하는 평고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안압지 발굴 통평고대 2, 문화재관리국, 『안압지발굴조사보고서』, pp.258~259, 1978

『안압지발굴조사보고서』에 기록된 하나의 평고대에 대한 기술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제2, 제3건물지 사이에서 출토되었다. 이 부재는 연목 위에 얹어 부연을 받드는 부재인데 초맥이와 부연착고를 한 나무로 만들어 부연이 평고대 위에 끼워지도록 하였다. 평고대 운두는 13cm(0.42자), 폭은 14.8cm(0.48자)인데, 뒤쪽을 사절(斜切)하여 연합 뒤쪽 처리와 같게 하였으며, 부연이 앉을 곳은 턱을 두어 뒤쪽으로 부연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였고, 홈은 뒤쪽으로 가면서 넓어져 부연이 앞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였다. 턱의 높이는 1단이 3cm(0.09자), 2단도 3cm(0.09자)로 하여, 결국 초맥이 높이를 6cm (0.19자)로 하여 총고(總高)의 1/2정도를 잡았고, 홈의 폭은 앞쪽이 9.3cm(0.3尺), 뒤쪽이 12.9cm(0.42尺)이며, 부연심심(心心)거리는 26.5cm(0.87尺)이다. 이 평고대는 현존 목조건물에서 볼 수 없는 특수형이다. 봉정사 극락전의 경우, 초맥이와 부연착고를 일체로 한 것이 있으나, 턱이 없고 세부수법이 다르다. 홈한 곳에는 연목에 박혔던 방두정(方頭釘)이 있었다. 길이는 13.7cm(0.45자)였고 연목에 8cm(0.26자)정도 박혔던 것으로 보인다.”¹⁰⁾



<그림 5> 안압지 발굴 통평고대 1, 문화재관리국, 『안압지발굴조사보고서<도판편>』, p.178

10)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편, 『雁鳴池 : 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1978, p254

위 상황 묘사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안압지에서 발굴된 통평고대는 고려시대의 통평고대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연합과 같이 단면이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유사하나 폭이 넓은 반면 높이가 작게 만들어졌다. 또 부연이 꽃히는 자리에 턱을 만들었는데 이런 모습은 다른 예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이다.

현존하는 건축물의 수리를 통해 확인된 통평고대의 모습도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통평고대는 단면이 삼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세병관이나 피향정의 통평고대는 사각형의 단면으로 만들어져 있어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또 봉정사 대응진, 부석사 조사당은 부연이 결구될 홈을 부연 폭으로 가공하여 딱 맞게 만든 반면, 봉정사 극락전이나 피향정과 같이 결구되는 자리를 사다리꼴 모양으로 가공해서 부연의 방향을 조절가능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¹¹⁾ 안압지에서 발굴된 평고대 역시 부연과 결구되는 자리를 사다리꼴 모양으로 가공하였다.

3-4. 소로의 사례를 통한 구로대의 발음 추정

의례에 기록된 구로대는 표기된 한자의 발음에 따라 '구로대'로 읽히는 경우와 '구루대'로 읽히는 경우가 있었다. 또 현재 단청장인들은 이 부재를 '구리대'라고 부르고 있었다.

'구로대'로 읽히는 표기방법으로는 의례에 따라 '久老代', '仇老代', '求路代', '仇老臺', '仇露臺', '求露臺'로 기록되었고, '구루대'로 읽히는 표기방법으로는 '仇累臺', '九累臺'의 두가지 사례가 등장했다. 구로대의 표기 방법에 있어서 '구'는 '久', '仇', '求', '九'로 표기되어 발음상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고, '대' 역

시 '代', '臺'로 표기되어 발음상에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발음인 '로', 혹은 '루'의 경우인데 '로'는 '老', '路', '露'로 표기되었으며, 루는 모두 '累'로 표기되었다.

여러 건축부재 중에서 '老', '路', '露', '累'가 모두 의례에 등장하는 부재로 '소로'를 들 수 있다. 이 부재는 거의 모든 산릉의례 및 영건의례에 등장하기 때문에 변화양상을 확실히 알 수 있어 구로대의 발음을 추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덕궁수리도감의례』(1647년)에서 구로대는 '久老代', '仇老代', '求路代'로 표현된 반면, 소로는 '小老', '小櫓', '小路'로 표현되었다. 『창덕궁수리도감의례』의 기록은 다른 의례에 비해 독특한 표기법이 많이 발견되고, 같은 부재라 할지라도 다양하게 표기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구로대와 소로 역시 다양하게 표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부재 모두 '로'의 표현에 있어 '老', '路'가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소로에서는 '櫓'가 사용된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례에 기록된 소로의 표기 변화 양상은 구로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일관된 모습을 하고 있다. 17~18세기에 기록된 대부분 의례에서는 '小露'로 표기한 반면 이후 19세기 및 20세기 초에 기록된 의례에서는 '小累'라고 기록하고 있다. 간혹 독특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효종산릉도감의례』(1659)에서는 '小路', 『경모궁개건도감의례』(1776)에서는 '小老', 『남전중건도감의례』(1858)에서는 '所累'라고 표기했다. '소'는 '小'로 거의 일관되게 표기된 반면, '로'는 '로'로 읽히는 경우 '老', '路', '露'로 표기되었고, '루'로 읽히는 경우는 모두 '累'로 표기되었다. 이런 모습은 구로대의 상황과 거의 유

11) 문화재청, 『영조규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p497., 2006

[표 2] 영건의례 및 산릉의례에 기록된 소로

의례명	시기	소로
창덕궁수리도감의례	1647	小老 小槽 小路
효종산릉도감의례	1659	小路
효종릉천봉산릉도감의례	1673	小露
인선왕후산릉도감의례	1674	小露
현종승릉산릉도감의례	1675	小露
장렬왕후휘릉산릉도감의례	1688	小露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례	1701	小露
경종의릉산릉도감의례	1725	小露
진전중수도감의례	1748	小露
의소묘영건청의례	1752	小露
순희세자상시봉원도감의례	1755	小露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례	1757	小露
장조영우원묘소도감의례	1762	小露
수은묘영건청의례	1764	小露
경모궁개건도감의례	1776	小老
영조원릉산릉도감의례	1776	小露
문효세자묘소도감의례	1786	小露
문희묘영건청등록	1789	小累
장조현릉원원소도감의례	1789	小露
정조건릉산릉도감의례	1800	小累
화성성역의례	1801	小累
인정전영건도감의례	1805	小累
건릉산릉도감의례(천봉)	1821	小累
현목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례	1822	小累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례	1824	小累
효명세자연경묘묘소도감의례	1830	小累
서궐영건도감의례	1832	小累
순조인릉산릉도감의례	1834	小累
창경궁영건도감의례	1834	小累
창덕궁영건도감의례	1834	小累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례	1843	小累
문조수릉산릉도감의례	1846	小累
문조수릉천봉산릉도감의례	1855	小累
순조인릉천봉산릉도감의례	1856	小累
인정전중수의례	1857	小累
남전증건도감의례	1858	所累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례	1895	小累
진전증건도감의례	1900	小累
영희전영건도감의례	1901	小累
중화전영건도감의례	1904	小累
경운궁증건도감의례	1906	小累

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화성성역의례」 도편에 묘사되어 있는 '小累'의 모습이다. 이 부재는 공포의 결구를 보강해주는 부재로서 현재 '소로'로 널리 알려진 부재이다. 비록 표기는 '小累'로 표기했으나 읽히는 방식은 '소로'로 읽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仇累臺' 및 '九累臺' 역시 표기와 다르게 '구로대'로 읽히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것은 '中衿'이라고 표기하고 '중깃'이라고 읽는다든지, '平交臺'라고 표기하고 '평고대'라고 읽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표기법과 발음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의 일종인 것이다.

小累



<그림 6> 「화성성역의례」 도설편 소로

4. 의례에 나타나는 구로대의 시대적 변화 양상

앞서 의례에 기술된 구로대는 현재 통평고대라고 칭하는 부재라는 것을 추정할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구로대라는 부재가 언제까지 의례에 등장하고 언제부터 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축물에서 비록 작은 부분의 변화이기는 하지만 신라시대 이래 변함없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부재가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은 결코 작은 변화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의례에서 구로대가 등장하는 마지막 의례는 「인정전영건도감의례」이다. 「인정전영건도감의례」는 1805년에 기록된 의례이다. 인정전을 새롭게 짓는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는



<그림 7> 1776년에 건립된 영조(英祖) 원릉(元陵) 정자각 구로대, 문화재청, 『동구릉 원릉 정자각 및 비각 수리보고서』, p.74, 2005

1803년(癸亥) 12월 27일에 시작해 1804년(甲子) 11월 17일에 마쳤다. 대부분 의례에서 건물에 사용된 부재는 실입(實入)에 기록되는 반면 『인정전영건도감의례』는 독특하게 도설(圖說)부분에 각각의 부재를 기술하고 있다. 각각의 부재를 기술함에 있어서 다른 의례들과 비교해 부재의 규격을 매우 자세하게 기술한 특징이 있는 의례이다. 그런데 구로대는 도설에 기술된 부재에 포함되지 않았고, 다만 이문(移文)과 내관(來關)편에 기술되어 있다. 두 기록은 모두 강원도 관찰사가 준비한 자재를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문의 1803년(癸亥) 12월 20일자 기록에

“…江原道下去木手金日祥…九累臺次十四株各長十二尺末圓徑一尺五寸 平交臺次八株各長五十尺末圓徑一尺二寸…”

라는 내용으로 등장하며, 내관의 1804년(甲子) 3월 일자 기록에

“…江原道觀察使爲上途事今此殿宇木物本道先卜定 翼工次三百七十株 九累臺次十四株 平交臺次八株 長舌次一百五株…”

라는 내용으로 등장한다. 강원도에서 재목을 마련해 한양으로 보냈으나 실제로 구로대가 건물에 사용되었는지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 도설에 기록된 평고대의 내용에 따르면 하층에는

“平交臺十六箇內 八箇各長五十二尺高五寸 八箇各長四十二尺高五寸”가 사용되었고, 상층에는 “平交臺十六箇內 八箇各長四十八尺 八箇各長三十八尺”

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상층에는 평고대의 높이가 표시되지 않았으나 다행히 하층의 평고대는 높이가 기록되어 있다. 두 종류의 평고대가 길이는 다르지만 모두 높이 5치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강원도에서 구로대용 재목을 보냈지만 실제 구로대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착고와 관련된 명칭이 의례에 보이지 않는데 이는 기록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례는 『서궐영건도감의례』에서도 확인된다. 『서궐영건도감의례』에서는 겹처마인 건물의 실입을 기술하면서 ‘初再平交臺’를 사용한 것으로 표현했으나 착고를 기록하지 않았다. 즉 초평고대와 재평고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부재로 표현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착고가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지만 기록에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참고로 1857년 기록한 『인정전중수의례』에는 ‘着厝板’이 등장하는데 평고대와 착고판 모두 새로운 부재를 사용했다(新備)고 기록하고 있다.

구로대가 표현된 의례 중 『인정전영건도감의례』를 제외하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의례는 1789년에 기록된 『(장조)현릉원원소도감의례』이며, 착고(부연간판)가 기록된 최초의 의례는 1800년에 기록된 『(정조)건릉산릉도감의례』이다. 그러나 여기서 『화성성역의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성성역의례』가 비록 1805년에 편찬되었지만 실제 공사는 1794년(甲寅)에 시작해서 1796년(丙辰)에 마무리되어 『(정조)건릉산릉도감의례』보다 앞서는 시기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겹

처마로 구성된 대부분의 건축물은 1794년에 만들어졌다. 즉 의궤의 기록만으로 판단하면 관영건축 중 화성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착고라는 부재가 채용된 것이다. 착고를 지칭하는 부재의 용어에 있어서도 전혀 생소한 '부연간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화성성역의궤』는 건축역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주목되는 의궤이다. 새롭게 계획도시를 건설한 것도 매우 놀랍지만, 건축재료에 있어서 과감하게 벽돌을 채용하였고, 시공도구에 있어서 거중기 및 유형거를 새롭게 개발해 사용하였다. 여러 방면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었다. 이런 정황으로 판단하건데 건축물을 만드는 세부 기법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구로대를 사용하지 않고 착고를 사용한 것이 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5. 결론

지금까지 영건의궤 및 산릉의궤에 기록된 구로대라는 건축부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로대는 의궤에서 '久老代', '仇老代', '求路代', '仇老臺', '仇露臺', '求露臺', '仇累臺', '九累臺'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되었다. 의궤에서 구로대가 표기된 부분은 지붕부에 해당하고 있었으며 특히 처마와 연관된 부재임을 알 수 있었다.

『경모궁개건도감의궤』에 기록된 내용과 단청장인이 착고를 구리대라고 부르는 점, 의궤에 기록된 착고, 평고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구로대가 현재 통평고대라고 불리는 부재임을 추정하였다. 통평고대는 초평고대와 착고를 겸하도록 만들어진 건축부재를 말한다.

의궤의 기록에 의하면 구로대는 1789년에

기록된 『(장조)현릉원원소도감의궤』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며, 1794년에 시행된 화성성역에서부터 등장하지 않는 대신 부연간판이 등장해 현재의 착고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의궤의 기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과연 착고의 사용이 사찰과 같은 민간건축에서 선행하고 후에 관영건축에서 반영한 것인지 혹은 화성성역 당시에 새롭게 개발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1.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2007.
2. 문화재관리국, 『안압지 :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78.
3. 문화재청, 『영조규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6.
4.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III : 단청』, 재판, 보성각, 1998.

접수(2009. 4. 15)

수정(1차 : 2009. 5. 30, 2차 : 2009. 6. 5)

게재확정(2009. 6. 30)

A Study on the Gurodae, architectural member recorded on Yeonggeonuigwes and Sanleunguigwes

Lee, Yeon-Ro
(Ph. D)

Abstract

This thesis mainly deals with what is the Gurodae, recorded on the Yeonggeonuigwe and the Sanleunguigwe.

Gurodae makes diverse appearance In Uigwes.(久老代, 仇老代, 求路代, 仇老臺, 仇露臺, 求露臺, 仇累臺, 九累臺) It seems that Gurodae was an architectural member used on the roof. Especially that was a member of the eaves. Gurodae looks like a Pyeonggodae, located on the end of the rafters. But it differs in the shape compare to that of Pyeonggodae. Gurodae has the shape of combined members, Pyeonggodae and Chakgo. Chakgo is a member covering the space, between two Buyeons So Gurodae has the shape of prominence and depression.

The result obtained by surveying the Uigwes is the Gurodae used until 1789. After the publication of HyeonlyungwonUigwe in 1789, that member was no longer existed on the other Uigwes. In 1794, the year making Hwaseong fortress, Gurodae divided into two members, Chopyeonggodae and Chakgo. Since then Chopyeonggodae and Chakgo never combined again.

Keywords : Yeonggeonuigwe, Sanleunguigwe, double eaves, Pyeonggodae, Chakgo
